참 싱거운(?) 엔딩

(눅24:50-53)

50.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2.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참 싱거운(?) 엔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참 싱거운 엔딩'
'싱겁다'라는 말은 전혀 흥미롭지 못하고 뭔가 쌈빡한 것이 없이 흐지부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싱겁다라는 말은 음식이 싱거운 게 아니니까.
또, 사람이 싱겁다고 할 때는 생뚱맞은 말을 분위기에 안 맞게 해대는 사람을 싱거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흥미로운 게 없습니다.
뭔가 마음에 또렷하게 파고드는 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흐지부지합니다.

예수님의 궤적이라고나 할까, 행적의 자취라고 할까요?
그 궤적을 그려보면 서클이 하나 형성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서른 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구름 속에 있던 물이 비가 돼서 땅에 내려오고, 흘러흘러 가장 지구상에서 낮은

바다로 내려갔다가, 그 바다에서 햇빛을 받고 더워진 수면에서 수증기가 돼서 다시 하늘로 올라서 구름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런 하나의 서클을 이루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순환적 사고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니까.
그리고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저세상의 세계가, 지옥이든 천국이든, 열려갈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있을 수 없는, 땅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올라가시는, 이 은혜스럽고 굉장한 궤적의 끝이 땅에 남겨진 결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추종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뭐가 기쁘다는 것인지.
그토록 바라던 상황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어져 있는 지금의 상태가 개선되고 변화하고 혁명적인 어떤 향상을 향한 다이내믹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큰 기쁨이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마음에 구체적으로 와 닿는 공감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땅에 안 계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주님도 안 계시고, 주님이 하늘에 승천해버리셨으니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큰 기쁨이라고 그러고,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 허허, 참!
이것이 공관복음의 엔딩입니다.
누가복음의 엔딩이면서 동시에 공관복음서의 엔딩입니다.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70년에 망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시기를 70년이라고 못 박지는 않으셨지만 성전은 망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전정화를 하셨지만 성전정화를 하셨다고 해서 대제사장과 유대지도자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성전을 그 뜻에 맞춰서 이끌어 간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굳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 말을 한 것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가 하면, 적어도 오순절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늘 성전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으로부터 구별되어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일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순절이라는 한정된 기한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전이라는 구별된 공간으로 들어와서 삶과 괴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했다 이겁니다.
아, 참 맥없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요란한 예수님의 궤적이 이 땅에서 이렇게 싱거운 엔딩을 갖습니다.

어제, 목사님 두 분이 강릉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유쾌한 대화를 장장 네다섯 시간에 걸쳐서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 도중에 굉장히 머뭇머뭇 하시고 조심스러워하시면서 부탁을 하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얼 부탁하시는가 하면, 이제 공관복음서가 거의 끝나 가는데, 요한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을 좀 건너뛰고 로마서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좀 더 대화를 진행하다 보니, 구약이 훨씬 더 다이내믹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야말로 구약에서보다는 비교적 흥미롭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로 가서 이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한절한절 말씀을 전해주실 수 없겠냐?
이런 부탁을 제가 꽤 여러 번 받아요.
어떤 분은 미국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주실 수 없느냐, 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당신이 속한 지역의 목사님들이 요즘 미국의 베리칩이나 666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특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666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신다고 계시록을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목사님들은 로마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대영박물관의 관장님이셨던 분이 얘기하셨다고 하는,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대영박물관에 있는 모든 문화유적들이 없어도 괜찮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으니까 전 세계에 식민

지를 갖고 있을 때 거기서 가져왔던 유물들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 모든 것과 로마서 8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그 말을 저는 이해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을 목사님들께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도바울의 로마서나 서신에 나오는 신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은 공관복음서가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정보를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영박물관의 관장님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만 있으면 기독교가 성립한다고 얘기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 게, 공관복음서만 있으면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한 해석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해석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로마서가 내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로마서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관복음서가 근간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행적, 공생애의 행적을 담고 있는 것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해석된 하나의 가능성이지, 로마서만 있으면 다른 성경 없어도 기독교가 성립한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관복음서가 싱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짜릿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상이 다 공관복음서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못 느끼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관복음서는 봉인된 책이다, 아무한테나 열리는 책이 아니다.

로마서는 그것도 아무한테나 열리는 책은 아니지만, 일단 한 단계를 거쳐 해석이 된 책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꾸 로마서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말이 어려운 것이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비유와 기적,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렵고 깊은 겁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하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요번에 구약을 끝내고 마태복음에 들어오면서부터 깨달았으니까, 뭐 누구보고 뭐라고 그럴 처지도 못 됩니다마는, 저는 깜짝 깜짝 놀랍니다.

그 깜짝 놀라는 감동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전달능력이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느끼는 감동대로 전달이 안 됐을 거라는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런 의심을 받기에 족할 만큼 엔딩도 싱겁습니다.
'아, 공관복음서 물론 좋고 귀하지만…'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할 때는 마음에는 이미 공관복음서 자체가 싱겁다는 얘기에요.
쌈빡하고 화끈하고 짜릿한 맛이 없다는 겁니다, 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들이고…
여러분, 맞아요, 결국 예수님의 놀라운 궤적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너무 싱겁습니다.
기껏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게, 지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되어진 게 없어요.
내게 주어진 현실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기쁨을 갖습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유가 없는 기쁨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통과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겨우 십자가의 의미가 제자들 속에 깨달아지고, 그 사건의 중차대함이 깨달아지면서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비록 지금 지구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변화산의 현장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는 그 광채 나는 모습의 현장이 어떻게 지구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구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와 천국이 오버랩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뒤 제자들과 함께 하신 40일 동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지구이지만 지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건 지구에서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는 터널입니다, 지구를 빠져나가는 터널이에요.
이렇게 지구를 빠져나간 상태에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들이 지구 바깥에 바싹 가까이 갖고 오신 천국의 기운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주려 온 겁니다.
내 경제적 상황, 내 목회현장에 어떤 획기적이고 센세이셔널한 변화를 주려고 복음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지구 바깥에 갖고 온 그 천국의 기운을 쐬게 하려고 십자가복음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생겼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하면, 충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워짐에서 기쁨은 나오는 거예요.
빈 구석이 있어야 되고, 빈 구석이 채워지면서 기쁨이 나오는데, 이들은 무엇으로 채워졌기에 이렇게 큰 기쁨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리고 주님은 승천해버리셨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큰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채워진 것을 가만 보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트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찬송하는 것은 산뜻한 비유는 아닙니다마는 트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트림을 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졌는데 트림을 합니다, 음식이 채워지면 트림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반드시 채워지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에요.
찬양이라는 말, 찬송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을 기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과 훌륭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훌륭함, 훌륭함이라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나무랄 데가 없고 빠진 구석이 없고 모자라는 게 없는 게 훌륭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먹었다는 증거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 그래도 싱겁지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복음은 이 땅에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서 빼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갖고 온 천국의 기운을 쐬게 하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 들이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갖는 걸로 끝난 거예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늘 성전에서'라는 건 삶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삶에서 죽어버렸다는 걸 지금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떠난 겁니다,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요, 하나님만 먹고 찬양하는 겁니다.
몸은 죽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이냐?

자, 예수님의 궤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시다 땅으로 내려오시고, 땅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려진 서클 중에 인간이 올라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요.
공생애 기간 동아 쫓아다녀도 예수님께 올라타지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했던 겁니다.
겉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올라타면서 이들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지구를 빠져나가요, 삶의 현장을 빠져나가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뜨고 하나님의 훌륭하심에 눈뜹니다, 하나님의 파워풀하심에 눈뜹니다.
하나님께 반해버리는 거예요, 돈에 반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에게 반하는 것처럼, 높은 관직에 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반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삶을 떠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전에서 늘 찬송한다'는 말로 누가는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내게 다가온 복음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이게 엔딩이에요, The End.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끝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지금 하늘로 올라갔는데.

요한복음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떠나야만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천국의 임계량이 채워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늘에 계시던 상태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지게 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서클 중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진입해 들어가서 천국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땅으로 내려온 예수님의 궤적을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먼저 하고, 하늘로 올라간 마음이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내려오면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내게 와서 내게서 일어나는 일의 엔딩은, 이거 이루고 싶다, 저거 이루고 싶다, 이거 됐으면 좋겠다, 하는 모든 소원이 죽고 이 삶을 떠나고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고, 내 직업이 되어버리는 상태.
이게 복음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천사들처럼 하나님만 찬송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찬송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훌륭하심은 그렇게 영원히 깨달아가도 다 깨닫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훌륭하심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니라 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삶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내 몸을 하나님께서 장갑삼아서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자꾸 이쪽을 내가 의지와 의욕을 갖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내게서 완성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싱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맛을 못 봐서 그런 것이지요.
십자가복음을 통해서 지구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빠져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사랑을 하려면 지구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지구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사랑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고, 지구를 빠져나가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임으로써 채워지므로 큰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 사람에게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공생애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싱거운 엔딩 속에 들어있는 무궁한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